

종돈개량 사업에 앞장서는

취재 : 곽 삼 섭

당진지부



▲ 당진지부종돈장은 부지11,200m²에 건평495m²의 규모

지난 6월 10일 회원 및 지역양돈 농가들에게 종돈개량은 물론 우수종돈을 보급하기 위하여 종돈장을 설립, 준공식을 가진 당진지부 종돈장을 찾았다.

당진지부 종돈장은 당진읍에서 약 10km(약 15분 소요) 떨어진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산 36-1번지(전화:(0457)52-7484)에 위치해 있다.

당진지부 종돈장은 종빈돈과 종모돈의 확보로 종모돈을 이용한 인공수정 사업과 종빈돈을 활용한 우수자돈 생산 및 보급을 실시하여 군내 양돈농가의 종돈개량을 목적으로 하고, 사양기술의 축적과 질병관리의 기능화 및 우수한 종돈의 저렴한 가격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종돈장을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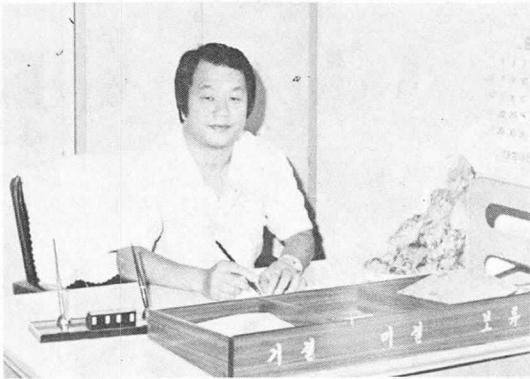
당진지부 종돈장은 부지 11,200m²에 분만사

195m², 종돈사 195m², 관리사 25m², 사택 80m² 등 건평 495m²를 갖추고 있다.

회원들의 공동출자(1억 5천만원)로 종돈장이 설립되었는데 토지구입(5천만원), 분만사(2천만원), 종돈사(1천 5백만원), 관리사무실(3백만원), 종돈구입(종모돈 10두, 종빈돈 40두 포함 6천만원), 기타 제비용(주위조경, 방역용 소독기, 관리비 포함 7백만원) 등에 사업자금이 소요된 것이다.

당진지부 종돈장의 종돈생산 계획은 종빈돈 40두(년 분만회수 2회)에 1복자돈 8두로 하여 연간 640두를 생산, 생산자돈을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역내 양돈농가에 우량종돈을 선발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있다.

인공수정 사업계획은 종모돈 10두, 1일 정액 채취두수 70%, 1일 수정계획 10두, 월 수정계



▲ 당진지부의 중추적 역할자로서 일을 해 오고 있는 최은범 지부장과 송형식 총무, 한상미 여직원의 집무 모습.

획 3백두, 년 3천 6백두의 수정계획으로 당진군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정액물량에 따라 인공수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종돈장에는 종모돈·종빈돈을 포함 25마리를 입식, 오는 종돈능력검정소 경매때 듀록(♂) 4마리, 랜드레이스(♂) 4마리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어 올해 연말까지는 종모돈 10두, 종빈돈 40두 등 총 50두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다.

당진지부 종돈장 관리는 현재 충남가축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권건오 수의사가 총 책임을 맡고 있으며, 권건오 수의사는 질병에서 사양관리까지 가축병원 15년 경력에 해박한 지식으로 지역 양축가를 위해 공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졌다.

또, 인공수정 사업으로 수정사를 채용할 예정으로 있어 근간 수정사가 채용되면 종돈장 업무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종빈돈 구입시 시중가격은 경매돈(능력검정소분) 구입경우 두당 50만원 이상이고, 종모돈의 경우 수입돈 2백만원 이상, 경매돈 1백만원 이상이므로 당진지부 종돈장에서 종돈을 분양할 경우 경매돈은 90만원, 수입돈은 1백 90만원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와 농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인공수정 사업을 운영할 시 시술료 포함 2만원, 수정료를 책정할 경우 두당 2~4만원의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위생적이고 신속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당진지부 회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당진종돈은 앞으로 종돈장 업무가 완전히 개시되면 이익금에 대하여 협회 운영자금으로 5%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투자액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하게 된다.

당진지부 종돈장 설립은 주위 마을 사람들에



▲ 종돈장의 관리는 25m²의 관리사무실에서.



▲ 종돈생산은 종모돈 10두에 연간 3천6백두의 인공수정, 종빈돈 40두에 연간 6백40두의 생산계획으로 있는 종돈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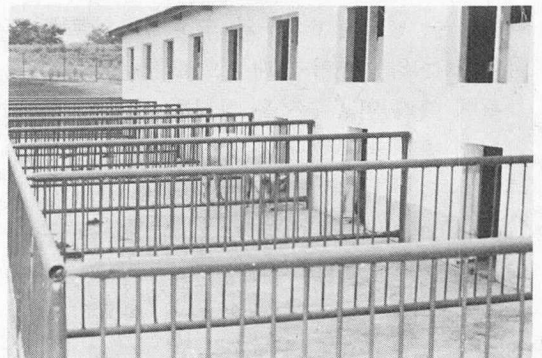
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종돈장 설립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봉교리(이장 : 이창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주민자녀 이각주군(신평고 2년) 등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것은 지부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종돈장 업무가 활성화 되면 농촌학생을 위해 내년부터 계속 4명정도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마을 사람들의 기대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들이 공동으로 종돈장을 설립한 당진지부(지부장 : 최은범)는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638-2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처음에 양돈인들의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모임을 가지다가 79년 대한양돈협회에 가입하여 81년도에 중앙회의 승인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초대 박봉준 지부장이 1년여 동안 지부운동을 맡아오다 현재 최은범 지부장(호서부곡농장)이 82년 초부터 줄곧 당진지부의 중추적 역할자로서 일을 해오고 있다.

당진지부는 전업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회원 52명이며, 현재 자체 활동으로 회원가입은 3명이 더 늘어날 예정이어서 전체 55명의 회원을



▲ 종돈의 사지를 튼튼하게 할 운동장 시설

확보하고 있다.

당진군의 양돈농가 수는 87년말 50~99두 178호, 100~499두 405호, 500~999두 6호, 1,000두 이상 6호로 부업농업을 제외한 전업규모 양돈농가의 회원은 평균 200~250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지부통계에 나타나 있다.

당진지부 운영조직은 다음과 같다.

- ▷지 부 장 : 최은범
- ▷부지부장 : 임형락, 이세영
- ▷이 사 : 홍사손, 신현우, 이희민
- ▷감 사 : 권건오, 원인희
- ▷총 무 : 송형식, 손종선